

“첫 소절 연주·독창으로 바꿔 따라부르기·기립 막아라”

MB 청와대·보훈처 치졸하고 치밀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저지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가 11일 밝힌 보수 정권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저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 정부가 얼마나 치졸하고 치밀하게 제창 저지 활동을 했는지 드러난다.

재발방지위는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했고, 정부 대표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보훈처는 ‘31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사용 관련 우리처 입장’이라 자료에서 “반정부 시위에 사용되고 있는 노래를 정부기념식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 대표로 참석하신 주빈이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곤란하다”면서 “공식 식순에 포함하되 기념식순 말미에 합창단이 연주 및 노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어 이런 방침을 사전에 5·18 단체에 통보할 경우와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전개될 상황을 각각 예상하고 의견을 통보하지 않고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자료는 적었다.

특히, 보훈처가 작성한 32주년 공연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와 보훈처가 ‘임을 위한

“둘째 소절 합창은 빠르게”

“5·18 단체에 통보 말라”

“찬성 과반 미달”... 여론 조작

반대 광고도 보훈처 기획

행진곡’ 제창을 막기 위해 얼마나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했는지 드러난다.

재발방지위는 “32주년 공연계획안에서 보훈처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 연주·무용만, 둘째 소절 합창(빠르게)’ 또는 ‘전주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하여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연계획안에 제시된 1안은 ‘첫 소절은 국악관현악단 연주 및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 1분 30초)’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한 장점으로 ‘첫 소절을 따라부르지 않게 함으로써 참석자 기립 및 제창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

이라고 판단했다. 2안은 ‘전주(1분30초) 도입, 첫 소절은 독창(느리게, 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

르게, 1분 30초)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한 장점으로 “공연 형식으로 진행해 참석자의 기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보훈처는 여론조작까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발방지위는 “지난 2013년 6월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 이후에도 보훈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수렴해 이종반대의견만을 내세우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소수로부터만 자문을 받고,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기념곡 찬성이 43%, 반대가 20%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위는 보훈단체 명의로 2014년 4월9일 한 보수신문의 기념곡 제창 반대 광고도 보훈처의 기획이었던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재발방지위는 밝혔다. 이어 “같은 문건 대책논의 부분의 관계기관 의견에 BH(청와대) 수석회의에 보고된 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와대와도 의견조율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제관함식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국복합항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유럽 순방...17일 교황청 집전 한반도 평화 미사 참석

교황 예방 김정은 초청 의사 전달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교황청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할 뒤,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또 하루 뒤인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세계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프랑스에 도착,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이튿날인 14일에는 한불 우정 콘서트에 참석,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감상한다. 프랑스 방문 셋째 날인 15일에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6일에는 한불 비즈니스 리더 서밋 기조연설을 하고 필리프 프랑스 총리와 오찬 회담, 오드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으로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17일 저녁 파리에서 출발해 로마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17일 이탈리아 공식 방

문의 첫 일정으로 마테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면담·오찬을 갖는데 이어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한다. 또 같은 날 ‘한반도 평화 미사’에 참석하고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서의 일정이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로마를 출발해 같은 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19일 아셈(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 등과 관련한 정부의 비전을 밝힌다. 업무 오찬 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알린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한 뒤, 20일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덴마크 여왕과의 면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 행진곡’ 5·18기념곡 법 제정 안되면 정부 시행령 제정해 제도화 방안 마련

보훈처 “5·18평화적 적극 대응”

국가보훈처는 11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와 관련, 이 같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훈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지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

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도 보훈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권력기관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제14회 14세&세계&경제

나는 버스가 경계선인 것 같다. 평소에는 청소년이지만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놀러 가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기 때문이다. 평일에는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집으로 가지만 주말에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거나 더 멀리 가서 놀 때는 공부를 하는 청소년보다 어른에 가까워진 것 같다. 그래서 난 버스가 청소년과 어른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한다.

강준용 / 가보고 싶은 곳 : 로마

경계선은 없다. 옛날에는 피부색이 경계선이었던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의 통합으로 그 경계선이 무너졌듯이 이것은 차이다.

조재민 / 장래의 꿈 : 우주정복자, 고고학자, 좋은 아버지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전라도와 강원도의 즐거운 만남. 새롭고 편안한 한시간대 하늘길

“무안공항-양양공항” 썬내선 취항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1588-2682
조이투어(판매대리점) | 1522-1901

www.keair.co.kr